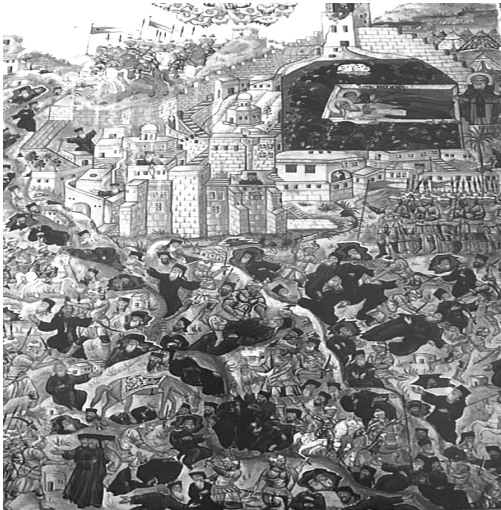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사바스 수도원의 40인 순교수사들

사순절 제2주일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대주교

성 아가피오스 순교자

제6조, 조과복음 6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 46. A 139

· 주교 찬양송 / 84. B 263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 사도경: 히브리 1, 10-2, 3 / 229. 봉독서 448

· 복음경: 마르코 2, 1-12 / 138. B 94

· 성모송(성 대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62. A 171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사바스 수도원의 40인 순교수사들

어떤 사람들에게겐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느님 앞에 순교의 투쟁이 더 가치 있는지, 아니면, 수도자의 수련이 더 가치 있는지?” 하지만 이러한 의문은 논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든, 수도자든 어디에 있든 자신의 방법에 따라 하느님께 영광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필립비 1:20)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눈물로 이루어지든, 피로 이루어지든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것

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언제 죽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에서 삶과 죽음은 얼마나 살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인들 중에서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들 - 순교수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3월 20일 축일로 기념하는 요르단 강 근처의 성 사바스 수도원의 40인 순교수사들이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영적 사랑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주시기 위한 영적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만 잘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외면하고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다. 하늘나라를 가게하기 위해 현실을 열심히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오늘 복음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 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하시고 나서 “일어나 요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가거라.”하시며 말씀하시자 중풍 병자가 요를 걷어가지고 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항상 먼저 믿음을 보신다. 그에게 기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기적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해서 들어주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죄와 투쟁하며 주님의 영적 사랑을 기다리는 것을 보신다.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주셔서 그의 풍부한 사랑으로 영적, 육적 상처를 치료해주시고 감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보시고 있다. 기적은 우리 살아생전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단순히 초능력적인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먼저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으면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은 더불어 주신다. 즉 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현실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려서 영혼의 구원을 얻기를 먼저 원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먼저 주님이 그들이 바라는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먼저 들어 주시면 열심히 믿고 따르겠다는 그릇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먼저 뭔가 보여 주시면 믿겠습니다. 먼저 보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하면서 “주십시오. 믿습니다.”하고 외쳐 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은 주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믿음의 자세로서 이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축복은 오직 사탄의 축복밖에 없다. 그들의 영혼을 담보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영원한 그의 나라인 지옥의 길로 인도한다.

예수님께서 중풍 병자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에 율법 학자들도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들은 신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초능력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것만 보고 싶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인간적인 바람을 앞세우고 하느님은 뒷전으로 무시하는 것과 같다.

☞ 3면으로 계속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트리폰 수도원장)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타인을 용서하려면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은총과 협력을 해야한다는 뜻이다. 곧, 우리도 많은 것을 용서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많이 용서해야만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 형제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분명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바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루가 23:34)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해주심으로써 다른 이를 용서하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주신 분도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용서하는 능력은 곧바로 사랑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으며, 우리가 용서를 발견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 안에서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 이웃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관심이나 의지에서 (타인의 관심과 의지로) 눈을 돌림으로써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웃을 용서하길 거부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길 거부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요한1서 4:20)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 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을 것이다.”(마태오 6,33)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중풍 병자와 같이 영혼의 구원은 물론 육신의 상처도 치료받는 기적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중 신부

소 식

대교구

■ 전주 성모안식 성당 재건축 시작

하느님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전주 성모안식 성당 재건축의 최종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차 견적을 통해 건축위원회의 검토와 교구 이사회의 동의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3월 말경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성당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방법 강화 및 방역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한국정교회에서도 모든 신자분들이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감염 대응 방법에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서 주보를 통해 공고한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준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은 지난 금요일(6일)에 자체 방역을 하였고, 월요일(9일)에는 구청으로부터 성당과 화장실 등 방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철저히 조심하고, 빨리 이 재난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느님께 간청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시간 안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대사순절 기간 주 중에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에 두 번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신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착오 없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식

- 화·수·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3월 18일(수) 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3월 20일(금) 오후 6시 : 성모기립찬양 (제3스타시스)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